

펑크(Funk) 드럼 연주기법에 나타난 창의성에 대한 연구: 데이비드 가리발디(David Garibaldi)를 중심으로

김관진¹, 조태선^{2*}

¹동원대학교 실용음악과 특임교수,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A Study on Creativity in the Funk Drumming: Focused on David Garibaldi

Kwan-jin Kim¹, Tae-seon Cho^{2*}

¹Collaboration Professor, Dept of Applied Music, Tong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1970년대를 기점으로 부흥기를 맞이한 펑크 음악의 대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드럼 연주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럼 전공생들에게 펑크 드럼 연주기법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연주기법에 나타난 창의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제임스 브라운', '어스, 윈드 앤 파이어', 데이비드 가리발디가 드럼 연주자로 있었던 '타워 오브 파워'를 대표 밴드로 선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해당하는 펑크 음악 발전이 시작된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발표한 대표 음악 2곡씩 선정하여 드럼 연주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창의적 연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대의 드럼 연주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 연주 박을 변경하거나, 박자를 쉬는 형태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패러디들(Paradiddle)', '악센트(Accent)', '스위스 아미 트리플렛 (Swiss Army triplet)' 루디먼트(Rudiment) 기법을 세트 드럼 전체에 적용하여 리듬에 혁신을 가져왔다. 셋째, 라틴 리듬의 삼바 패턴과 아프로-큐반(Afro-Cuban) 형식을 접목하였다. 넷째, 라틴 음악 구조에서 얻은 아이디어 유니즌 리듬을 펑크 음악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장르의 드럼 연주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제어 : 타워오브파워, 제임스브라운,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데이비드가리발디, 드럼, 루디먼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rum performance techniques, focusing on the representative artists of funk music, who had a revival starting in the 197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reativity shown in David Garibaldi's playing technique,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drum majors with his funk drum playing technique. As a research method, 'James Brown', 'Earth, Wind & Fire' and 'Tower of Power' with David Garibaldi as drummer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bands. For the study period, the drum performance was examined by selecting two representative songs from among the songs released between 1965 and 1975, when the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ing funk music began. David Garibaldi's creative performance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tried to create a new rhythm in the form of changing the beat or resting the beat out of the frame of contemporary drum performance. Second, the 'Paradiddle', 'Accent', and 'Swiss Army triplet' rudiment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entire drum kit, bringing innovation to the rhythm. Third, the samba pattern of Latin rhythm and the form of 'Afro-Cuban' were grafted onto funk music. Fourth, the idea of Unison Rhythm obtained from the structure of Latin music was applied to funk music. Based o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drum performance techniques of various genres will be conducted.

Key Words : T.O.P, James Brown, Earth, Wind & Fire, David Garibaldi, Drum, Ghosted note, Rudiment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June 28,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July 19,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펑크(Funk)란 ‘스윙(Swing)’과 ‘소울(Soul)’에 치중한 모던 재즈의 한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리듬 형식과 당김음(Syncopation)이 혼합되어 16분음표(Sixteenth note)를 3개씩 묶음으로 진행되는 폴리리듬(Polyrhythm)이 소울(Soul)에 대입되었고, 이 후 마디(mass)의 첫 번째 음표에 강박을 넣어 연주하는 펑크 비트(beat)가 만들어지게 되었다[2].

드럼 연주에 있어 화려한 연주기술 테크닉(Technique)과 리듬감(Groove)을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으므로 드럼 전공자와 연주인들에게 펑크 리듬은 인기가 있다.

1970년대 펑크 음악의 시조인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과 함께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는 펑크 음악 밴드로 유명하다. 이들 밴드 중에서도 그룹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의 드럼 연주자 데이비드 가리발디(David Garibaldi)는 펑크 드럼 연주기법에 있어 동시대 다른 연주자들보다 장르의 혼합과 복잡한 테크닉을 구사하며 펑크(Funk) 드럼 연주기법에 혁신을 가져왔고 그 세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드럼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펑크 장르의 드럼 연주기법에 나타난 창의성 연주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언급한 대표적 펑크 밴드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의 음악을 두 곡씩 선정해 그 곡에 사용된 리듬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드럼연주자 데이비드 가리발디가 소속되어 있는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의 대표 음악에 나타난 펑크 드럼 연주기법을 다른 밴드의 곡에 나타난 펑크 드럼 연주기법과 비교하여 이전과 다른 드럼 연주기법을 제시한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창의적인 연주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분석대상

펑크 드럼 연주기법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음악은 1973년 발매 음반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앨범의 대표곡 ‘What is Hip?’, ‘Soul Vaccination’을 분석대상 음악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

석대상으로는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음악 ‘Papa's Got a Brand New Bag(1965)’, ‘It's a Mother(1969)’와 1973년 발매된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의 ‘Head to the Sky’, ‘Build your Nest’를 선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음악 선정은 1973년 발매 음반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 음악을 분석하는데 있어 멜로디 중심에서 리듬 중심으로 변화한 시기로 구분하였을 때 1965년 발표한 ‘Papa's Got a New Bag’에서 강한 리듬의 백비트(Back beat)를 구사하였기에 이 곡을 펑크 드럼의 시작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의 선정 음악은 1973년 발표한 음악이다. 그들의 음반은 동시대 빌보드 차트(Billboard Chart) 상위권에 기록된 음반의 곡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음악들은 드럼, 베이스, 기타, 브라스 섹션(Trumpet, Trombone, Saxophone), 건반악기를 기본으로 편성하고 퍼커션을 포함하고 있다. 동일한 펑크 음악 장르와 밴드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 편성, 연주자의 수까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공통점이 많은 음악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1.1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제임스 브라운은 멜로디 중심의 블루스(Blues)와 가스펠(Gospel), 소울(Soul) 음악의 대부분을 불릴 만큼 그의 음악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빌보드 차트(Billboard Chart)에 90여곡의 히트 기록을 남겼으며, 약 800여곡을 발표한 대단한 음악가이다. 1965년 멜로디 중심에서 신나는 리듬 중심으로 변화한 펑크스타일의 ‘파파스 갓 어 브랜드 뉴 백(Papa's Got A Brand New Bag)’ 곡을 발표하였다. 2부로 발매된 이 곡은 리드미컬(Rhythmical)한 펑크스타일로 발표한 첫 번째 곡으로 Billboard Hot 100 Top Ten 8위에 올랐으며, R & B 히트곡 1위로 8주 동안 차트 1위를 차지했다[4].

제임스 브라운의 주요음반 중 밀리언 셀러(Million Seller)를 기록한 음반으로는 ‘파파스 갓 어 브랜드 뉴 백(Papa's Got A Brand New Bag)’, ‘아이 캔트 스탠드 마이 셀프(I Can't Stand My self)’, ‘잇츠 어 맨스(It's a Man's)’, ‘맨스 월드(Man's World)등이 있으며,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대표곡으로는 ‘아이 갓 유(I Got You (I Feel good))’, ‘아웃 오브 사이트(Out of Sight)’등이 있다. 그는 1992년에 그래미(Grammy Awards) 평생공로상을 수상 하였으며, 2006년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에

현정되었다[5].

2.1.2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1970년대 R & B, soul, funk, jazz, disco, pop, dance, Latin, Afro pop 등의 음악 장르를 아우르며 흑인들과 백인들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은 미국 출신 펑크 밴드이다. '어스, 윈드 앤 파이어'는 시대에 혁신적인 음악을 선보였으며 펑크 밴드 중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밴드이다[6].

그들의 히트곡으로는 '셉템버(September)', '렛츠 그루브(Let's Groove)', '부기 원더랜드 (Boogie Wonderland)', '애프터 더 러브 해즈 곤(After The Love Has Gone)', '갯 어웨이(Get away)' 등의 음악이 있다.

밴드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개 후보에서 6개의 그래미상을 수상 하였으며, 12개 후보 중에서 4개의 American Music Awards를 수상했다. 9천만 장 이상의 레코드 판매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 판매를 올린 밴드이다. 또한 ASCAP Rhythm & Soul Heritage Award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7].

2.1.3 데이비드 가리발디(John David Garibaldi)

펑크 드럼 연주의 혁신가로 불리는 데이비드 가리발디(John David Garibaldi)는 1946년 11월 4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 오클랜드(Oakland) 태생으로 7살부터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10살이 되면서 그램머 스쿨(Grammer School)에서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 심벌즈 등의 타악기를 접하게 되었다[8].

15세때 그는 학교 음악 감독을 맡은 제임스 캄파나와 토니 카빌리아가(James Campana and Tony Caviglia) 학교의 Big band에서 연주할 것을 제안받고, 드럼 세트 연주를 처음으로 할 기회를 얻었다. 오늘날 음악인들이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접속 가능한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레코드(LP)와 오디오 테이프를 들으면서 드럼 세트를 연주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했다[9].

그는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을 '더 그레이트 드러머스 오브 알앤비, 펑크 앤 소울(The Great Drummers of R&B, Funk& Soul)'에서 "17세에 부모님이 지역의 빅밴드(Big Band)에서 많은 밴드 연주자들과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것이 음악으로 돈을 버는 평생의 첫 일이었다"라고 언급하였다[10].

1964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 있는 차봇 주니어 칼리지(Chabot Junior College)에 입

학, 타악기 연주자이자 앙상블의 감독이었던 유진 그레이브스(Eugene Graves) 밑에서 공부했고 그는 베이스(Bass) 연주자가 없어 밴드에서 한 학기 동안 더블 베이스(Double basses)를 연주하게 되었다[11].

시대적 배경으로 그 당시는 록(Rock)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저속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재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가리발디가 드럼 연주에서 처음 추구한 것은 재즈(Jazz) 연주 테크닉과 레퍼토리(Repertory)를 구성하는 것이었다[8]. 타악기 연주 연구에서 익힌 루디먼트(Rudiment)와 Big band 재즈 연주에서 훈련된 리드미컬(Rhythmical) 한 베이스 드럼(Bass Pattern) 패턴과, 정확한 타격감(Accuracy Touch), 악센트 주법 등은 펑크 음악에서 사용된 연주 아이디어로 발전하게 되었다[12].

가리발디의 드럼 연주에서 첫 번째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65년 새너제이 시빅 오디오토리움(San Jose Civic Auditorium)에서 공연하는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을 보았을 때 펑크 음악과 연주에 매료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록 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주기법 8분음표 리듬(Eighth Notes Rhythm)에서 사용하는 2&4 박자에 악센트를 주어 연주하는 형태의 백 비트(Backbeat) 패턴에서 정확하고, 리듬감이 넘치는 그루브(Groove)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싱코페이션(Syncopation) 드럼 연주는 가리발디의 연주 스타일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정박의 기본연주에 취중 되어 있던 그의 연주로부터 벗어나도록 음악적인 비전과 영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13].

차봇 주니어 칼리지(Chabot Junior College)에서 교육을 받던 가리발디는 1966년 8월 28일 ~ 1969년 12월 8일까지 워싱턴주 타코마 안에 주둔한 미합중국 공군(United States Air Force-USAF)'맥코드 에어 포스 베이스(McChord Air Force Base)'에 724기 미합중국 공군 밴드의 멤버로 입대해 군대의 악단에서 팀파니, 콘서트 스네어 드럼, 말렛 타악기를 연주하였다[14].

1970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Bay Area)에서 짧은 기간 많은 밴드에서 프리랜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생활하였다. 다양한 그룹에서 연주하고 있던 가리발디는 오클랜드의 온 브로드웨이(On Broadway) 클럽에서 리얼리티 샌드위치(Reality Sandwich) 밴드 연주하며 커버곡(Cover song)을 연주하던 밴드 음악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그는 독창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음악에서 자신의 소리(Sound)를 찾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15]. 이는 1965년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공연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다.

가리발디 연주에 영향을 미친것은 펑크 음악과 더불어 라틴 음악이었음을 다음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난 라틴 음악에 많은 관심은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알지 못했다. 그때 내 주변에는 산타나(Santana)에서 연주하는 아르만도 페라자(Armando Peraza)와 빅터 판타자(Victor Pantaja) 등의 연주자들은 스트레이트(Straight)로만 연주하지 않았고 라틴과 재즈, 락 등도 연주하였다. 난 에디 팔미에리(Eddie Palmieri)와 칼 제이더(Cal Tjader)의 라틴 음악을 듣기 시작하였고, 라틴의 느낌에 푹 빠져버렸다[16].”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성장 과정에서 빅밴드(Big Band), 차봇 주니어 칼리지(Chabot Junior College), 재즈(Jazz) 연주,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군악대 타악기 연주, 라틴 음악 등은 그의 연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 수 있다.

클럽에서 연주하던 밴드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는 드럼 연주자의 공백으로 새로운 드럼 연주자를 찾고 있을 때 가리발디에게 밴드 공연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다. 팀의 리더를 맡은 에밀리오 카스티요(Emilio Castillo)는 가리발디의 연주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Garibaldi는 단순히 비트를 연주하지 않고 다른 악기와 드럼을 어떻게 밴드와 통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연주자이다. 드럼으로 독특한 사운드를 구사하였고, 깨끗하고 정확한 느낌으로 밴드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17].” 그의 나이 23세에 밴드 ‘타워 오브 파워’의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펑크 드럼 연주기법의 혁신자가 되었다.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오클랜드(Oakland)에서 결성하여 첫 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는 소울 재즈 펑크(Soul Jazz Funk) 장르를 개척한 신화로 50년 역사를 가진 펑크 음악 장르의 최고 정상 밴드이다[18].

1970년 데뷔하여 지금까지 31장의 정규음반을 발매하였으며, 1970년대 총 13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1970년대 데이비드 가리발디가 참여한 정규음반 8장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드럼 연주자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연주는 1973~1974년도에 발매된 앨범으로, 1973년 발매된 『Tower of Power』, 1974년에 발매된 『Back to Oakland』 앨범이며 특히 『Back to Oakland』

Table 1. Tower of Power Record Released 1970s

Record Title	Year of Release
East Bay Grease Knock Yourself Out	1970
Bump City	1972
Tower of Power	1973
Back to Oakland	1974
Urban Renewal	1974
In The Slot	1975
Ain't Nothin' Stoppin' Us Now	1976
Back On Street	1979

는 모던 드러머 매거진(Modern Drummer Magazine) 투표에 의하면 드럼 연주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앨범으로 추천되었다[19].

2.2 드럼 연주기법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드럼 표기법은 Fig. 1과 같이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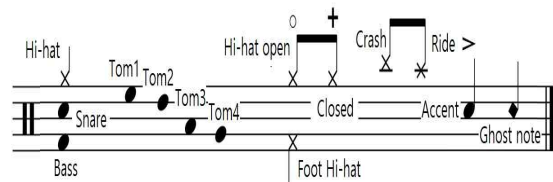


Fig. 1. Drum Notation

1970년대 펑크 리듬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타워 오브 파워’ 데뷔 이전의 1965년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음악을 통하여 초기 펑크 드럼 연주 스타일을 살펴보기로 한다. 초기 리듬은 가장 기본적인 록(Rock) 음악에서 사용하는 8분음표 리듬 (Eighth note Rhythm) Fig. 2를 연주하였다.

2.2.1 제임스 브라운 (James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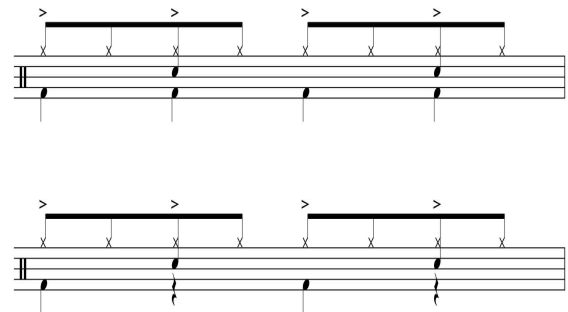


Fig. 2. Basic Funk Drum Rhythm

초기 펑크 음악에 사용된 드럼 연주기법은 4분음표 베이스 드럼(Bass drum), 8분음표 하이햇(Hi-hat) 기본 리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스네어 드럼을 백 비트(Back Beat) 2박(Beat)과 4박(Beat)에 악센트(Accent)를 주어 연주하며,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간 A' 베이스 드럼의 연주는 4분음표, 8분음표로 연주되어 기본 하이햇 리듬 기준에서 연주된 형태를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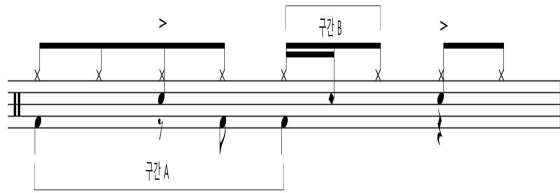


Fig. 3. 'Ghost note' Rhythm

'구간 B' 스네어 드럼의 연주기법은 하이햇 리듬 사이 16분음표로 고스트 노트(Ghost note)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백 비트 스네어 드럼 연주 사운드에 비해 30~50%의 작은 볼륨으로 연주하며, 곡의 흐름이나 리듬에 따라 더 강하게 연주 할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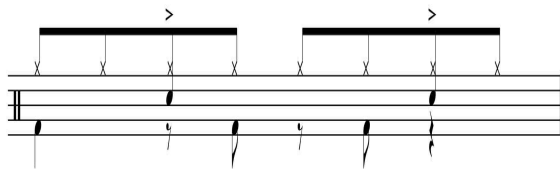


Fig. 4. 'Papa's Got A Brand New Bag' Drum Rhythm

1965년 발표된 '파파스 갓 어 브랜드 뉴 백(Papa's Got A Brand New Bag)' 드럼 연주기법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분음표 기본 리듬으로 연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스 드럼 연주는 8분음표 싱코페이션(Syncopation)으로 연주하였고, 스네어 드럼은 2박과 4박에 악센트기법을 사용한 백비트 리듬으로 연주하였다. 고스트 노트는 연주하지 않았다. 드럼 연주에서 사용한 리듬은 복잡한 테크닉 사용은 없고, 다른 파트 연주를 뒷받침 해주면서 기본박자(Meter)와 기본 리듬 연주에 충실했다.

제임스 브라운의 데뷔 이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1969년 발표한 'It's a Mother' 음악에 연주된 드럼 연주기법은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 Fig. 5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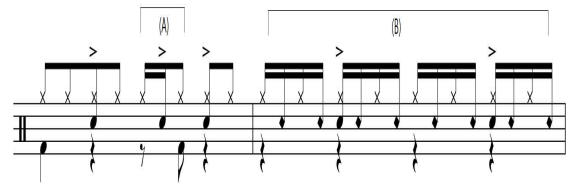


Fig. 5. 'It's a Mother' Drum Rhythm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파스 갓 어 브랜드 뉴 백'의 리듬 연주기법 (Fig. 4)에 비하여 스네어 드럼 연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구간을 보면 16분음표로 스네어 드럼에서 연주하면서 음악 리듬에 변화를 주기 위해 스네어 드럼 연주 박(beat)에서 벗어난 어택 포인트 연주(Attack Point)악센트를 사용하였다. (B) 구간은 마디(Bar)의 기본 백 비트(Back Beat) 2박(Beat)과 4박(Beat) 악센트 연주와 16분음표 전체를 고스트 노트 사용으로 리듬의 풍부함을 주기 위해 마디 전체를 채워 연주했음을 확인하였다.

'잇츠 어 마더(It's a Mother)'는 1967년 발표한 '콜드 스윗(Cold Sweat)'곡과 유사한 연주 구조를 보였다. 빠른 템포로 연주되었고, 브라스 금관악기 섹션(Section)과 기타 3대를 사용하여 소리(Sound)의 풍성함을 더해 주었다. 리듬에 사용된 연주기법 16분음표 고스트 노트(Ghost note)는 드럼 연주자의 양손(Alternating hand)을 순서대로 교차하면서 연주한다. 당시 특이점은 고스트 노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며,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 'Mother Popcorn'에서 Fig. 5의 고스트 노트 수(beat)를 좀 줄이는 대신 그 위치에 베이스 드럼을 16분음표로 대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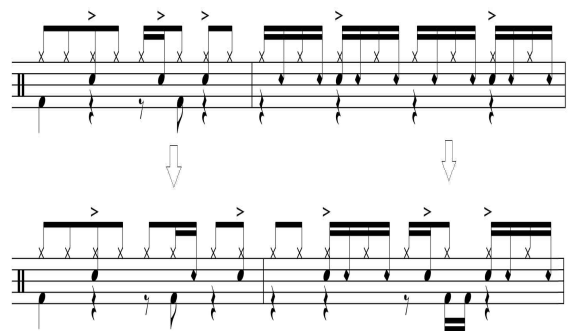


Fig. 6. 'Funk Drum Rhythm' Development 1960s

1965년 ~1969년 기간에 발표한 제임스 브라운의 선정 음악을 통하여 드럼 연주기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2 ~ Fig. 6의 악보에 나타난 것처럼 펑크 리듬이 8분음표의 단순한 리듬 구조(1960년대)에서 16분음표로 분할하면서 악센트(Accent), 고스트 노트(Ghost note), 더블베이스드럼(Double bass drum)으로 변화를 주는 것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2.2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1969년 미국에서 시작으로 1973년 5월 발표한 Earth, Wind & Fire의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 ‘Head to the Sky’이다. 본 앨범은 Billboard Top Soul Albums 순위 2위, Billboard 200순위 27위에 올랐다. Head to the Sky는 RIAA에 의해 미국에서 Platinum 인증을 받았다[20]. 리듬 분석 대상인 두 번째 트랙 ‘Keep Your Head to the Sky’ 음악은 Billboard Hot Soul Songs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하였다. 드럼 연주기법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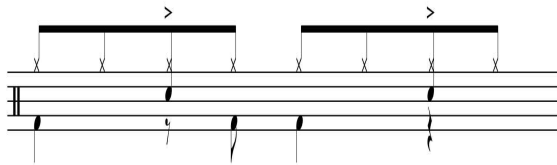


Fig. 7. ‘Keep Your Head to the Sky’ Drum Rhythm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8분음표 리듬이다. 베이스 드럼 연주는 8분음표 오프비트(Off beat)와 정박(On beat)으로 연주하였다. 기본박자(Meter)와 기본 백비트(Back beat) 리듬 연주에 충실했다. 곡의 템포(BPM) 120의 빠르기(Allegro)로 드럼 연주가 기본 8분음표 리듬으로 연주했지만, 곡에서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리듬은 16분음표 리듬 연주로 분할하여 연주하고 있다. 드럼 연주는 템포와 박자를 지키며, 다른 파트 연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두 번째, 리듬 분석 대상인 ‘Build Your Nest’ 음악은 ‘Head to the Sky’ 앨범의 세 번째 트랙이다. 앞서 분석한 ‘Keep Your Head to the Sky’의 Fig. 7의 연주기법과 비교하여 볼 때 하이햇 연주와 베이스 드럼 연주 차이를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ild Your Nest’에서 하이햇 연주는 16분음표로(Sixteen Note Hi-Hat Groove) 연주하였다. 스네어 드럼은 8분음표의 전형적인 연주기법인 2박과 4박 악센트를 사용한 백비트(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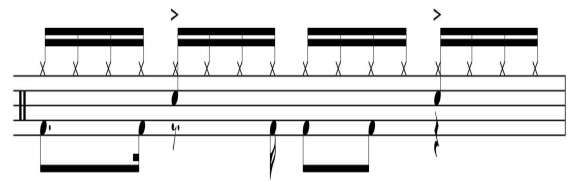


Fig. 8. ‘Build Your Nest’ Drum Rhythm

beat) 리듬으로 연주하였다. 베이스 드럼의 연주는 4분음표를 점 8분음표(Dotted eighth note)와 16분음표(Sixteenth note)로 분할하여 연주하였다. 두 번째 박자에서 베이스 드럼 연주는 점 8분 쉼표(Dotted eighth rest) 후 16분음표로 한 박자(One Meter)를 이루었다. 앞에서 분석한 제임스 브라운 (James Brown) 드럼 연주 기법을 분석한 Fig. 5는, ‘It’s a Mother’ Drum Rhythm의 스네어 드럼 고스트 노트 연주 자리에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여 더욱 리듬감이 풍부한 그루브(Groove)를 나타내 주었다.

곡의 템포(BPM) 92의 빠르기(Andante)로 긴장감 있는 빠르기로 연주하였다. 하이햇을 한 손 16분음표(One Hand Sixteen)를 연주하면 스트레이트(Straight)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이에 리듬감을 주기 위해 베이스 드럼에서의 리듬을 16분음표 사용으로 패턴화하였다.

2.2.3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의 ‘What is Hip?’은 ‘타워 오브 파워’가 1973년 발표한 세 번째 음반 첫 번째 트랙에 수록된 곡이다. 이 앨범(Tower of Power)은 1973년 Billboard Top LPs 순위 15위에 올랐으며 5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으로 ‘Gold record’ 수상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타워 오브 파워’의 발매 음반 전체에서 반복 수록할 만큼 마니아(Mania)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곡이다.

Table 2. ‘What is Hip?’ Released

Record Title / Track No.	Year of release
Tower of Power / 01 Track	1973
Funkland / 03 Track	1974
Liveand in Living Color / 03 Track	1976
Direct-Sheffield Labs / 05 Track	1988
Direct Plus / 10 Track	1997
Soul Vaccination : Live / 13 Track	1997
The East Bay Archive:Vol1 / 02Track	2008
40th Anniversary DVD / 19 Track	2011

‘What is Hip?’ 곡 구성의 인트로(intro), 인터루드(interlude), 브릿지(vridge)에 나타난 가리발디의 드럼 연주기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왓 이즈 힙?(What Is Hip?)’ 음악은 앞에서 살펴본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곡들과 같은 기본 16분음표(Sixteenth note Rhythm) 구성의 곡이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What Is Hip?’ 음악의 도입부 인트로(Intro)부터 8분음표 리듬 연주를 한 비교 대상의 곡과는 다른 16분음표 리듬의 연주기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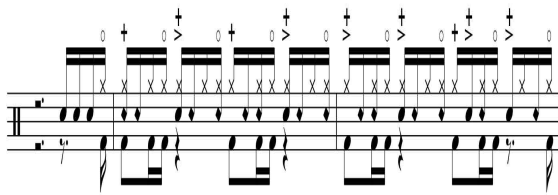


Fig. 9. ‘What Is Hip?’ Intro Drum Rhythm

인트로 연주기법을 하이햇(Hi-hat) 심벌즈와 스네어 드럼(Snare Drum)으로 분석해 보면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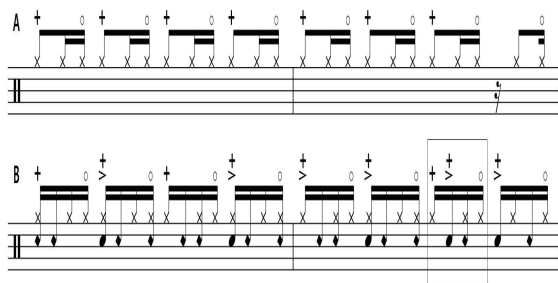


Fig. 10. ‘What Is Hip?’ Intro H/S Rhythm

하이햇 심벌즈의 연주는 Fig. 9의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Build Your Nest’ 곡과 연주 형식은 같은 16분음표 하이햇 연주 패턴이지만 Fig. 10,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박(拍, beat)을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분할 하여 연주하였다. 하이햇 연주기법 브라질 음악 장르 삼바(Samba) 리듬의 패턴이며 오픈/클로즈(Opening-Closing Hi-Hat) 연주기법을 사용하였다.

Fig. 10, B 스네어 드럼 연주는 비교 분석 대상 곡들에서 살펴본 연주에서 벗어나 기본 백 비트(Back Beat) 연주와 16분음표 전체를 고스트 노트 사용으로 Fig. 5의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 It’s a Mother 곡 리듬의 형식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마디 3박을 보면 2박과 4박 악센트를 사용한 백 비트(Back beat) 사이에 악센트(Accent) 연주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패턴으로 연주하였다. 하이햇 연주와 고스트 노트의 연속 사용으로 인트로(Intro) 부분에서의 긴장감과 스네어 드럼 리듬 연주 특성을 살려 주었다. 음악에서는 스네어 드럼과 브라스 파트가 동시에 연주하는 유니즌 리듬(Unison Rhythm) 형식으로 연주하였으며, 2마디(Bar) 패턴의 리프(Riff)로 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세트 드럼(Drum kit) 하이햇, 스네어, 베이스는 16분음표를 다 연주하는 것으로 구사하였으며, 음악에서는 베이스 기타(Bass Guitar) 연주와 동일한 연주 시간(Timing)으로 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루드(Interlude)에서 드럼 연주 변화를 Fig. 1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Fig. 11, I 악보에서 표기된 리듬을 보면 곡의 기본 리듬에서 연주된 백 비트 사용은 없고, 라이드(Ride) 심벌즈와 베이스 드럼의 악센트 연주기법으로 연주하였다. 네 번째 박에서 8분음표 연주만 라이드 심벌즈와 스네어 드럼에 악센트 연주를 하였다.

Fig. 11, S에 표기된 리듬은 Fig. 10, A에서 설명한 삼바(Samba) 리듬의 스네어 드럼 리듬 연주이다. I 악보에 표기된 2박, 3박의 스네어 드럼 연주와 S 악보에 표시한 1박, 2박에서 베이스 드럼과 라이드 심벌즈, 4박에서의 스네어 드럼 악센트 연주는 박자와 리듬 패턴이 동일한 리듬임을 알 수 있다. 인터루드(Interlude)에서 사용한 드럼 연주의 기본은 삼바(Samba) 리듬을 변형(variation)하여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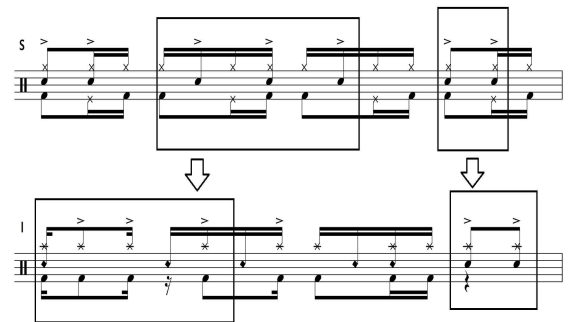


Fig. 11. ‘What Is Hip?’ Interlude H/S Rhythm

Fig. 12는 ‘What is Hip?’ 곡의 브릿지(Vridge) 부분의 드럼 리듬이다. 가리발디의 연주 스타일은 드럼 루디먼트(Rudiment)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릿지

(Vridge) 연주 리듬은 패리디들(Paradiddle) 루디먼트 변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손의 교차 방식(RLRL)의 16분음표 연주가 아닌 복잡한 구조의 연주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드럼 루디먼트(Rudiment)는 군악대에서 시작하여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사용된 스네어 드럼의 기본 연주방법으로 19세기 미국에서 정립되었다. 1984년 P.A.S(Percussive Arts Society)로부터 40여 가지 연주 패턴이 오늘날까지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 되어지고 있다.

패리디들(Paradiddle)은 ‘Parallel’ 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루디먼트의 종류로 16분음표 연주를 싱글 스트로크(Single Stroke) 두 개와 더블 스트로크(Double Stroke) 한 개의 조합을 병렬진행으로 연주하는 것을 의미 한다.

1970년대 펑크 리듬은 대부분 하이햇(Hi-hat) 심벌즈를 8분음표, 16분음표로 일정하게 연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리발디의 16분음표 하이햇 연주기법은 변형 패리디들(Inverted Paradiddle) 루디먼트를 사용하고 있다. 하이햇 심벌즈, 스네어, 베이스, 라이드 심벌즈를 사용하여 모티브 (motive)를 만들어 자신만의 독특한 연주기법을 고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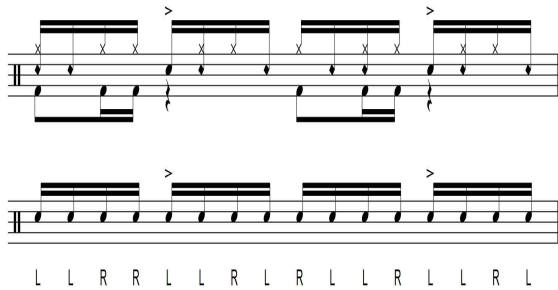


Fig. 12. ‘What Is Hip?’ vridge Rhythm Rudiment

펑크 리듬의 기본적인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의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자에 베이스 드럼과 하이햇을 같이 연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가리발디는 1960년~1970년대 당시의 기본적인 형식을 무너뜨리고 Fig. 12, 루디먼트에서 양손을 확인할 수 있듯이 왼손을 첫 번째 박자에 넣는 리듬을 만들었고 그것은 그 당시 연주자들에게 획기적인 연주기법이다. 또한, 하이햇과 스네어 드럼이 일치하지 않는 패턴으로 프레이징을 만드는 것은 당시 펑크 리듬에 혁신을 가져다주었다[21].

이러한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드럼 연주법을 드럼 전문 매거진(magazine) ‘모던 드러머(modern drummer)’에서는 이전에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방법이라 평가하였다[22].

‘Soul Vaccination’은 앞서 분석한 ‘What is hip?’ 앨범 『Tower of Power』에 수록된 8번 트랙 곡이다. 동일한 기간에 녹음이 진행되어 발표한 앨범으로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연주 스타일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되겠다.

‘Soul Vaccination’ 곡 구성 중 가리발디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인트로(Intro), 벌스(Verse), 코러스(Chorus)에 가리발디의 연주기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트로(Intro) 연주는 드럼 필인(Fill in)으로 시작하여 브라스 파트와 유니즌 리듬(Unison Rhythm)으로 싱코 페이션(Syncopation) 연주로 시작되었다. 드럼에서의 필인은 ‘채우다’의 뜻으로 곡 구성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때, 혹은 특정 부분에서 연주자가 선택하여 연주하게 된다.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인 리듬은 곡의 브라스 파트의 연주 리듬을 그대로 적용하여 드럼으로 리프(Riff) 형식의 연주를 하였다. 인트로 연주에서의 첫 번째, 특징은 하이햇 연주는 없으며, 라이드 심벌즈의 벨(Bell)을 사용한 악센트 연주기법은 다른 파트의 연주 리듬을 리프(Riff) 형식의 연주와 소리(Sound)에 변화를 주고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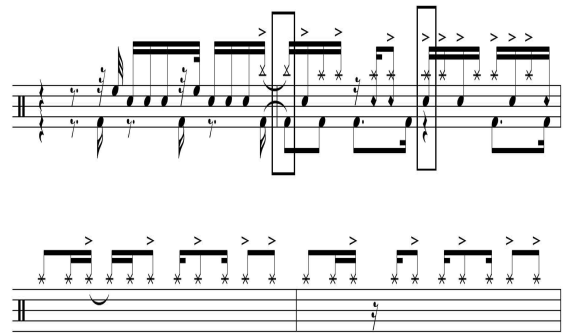


Fig. 13. ‘Soul Vaccination’ intro Drum Rhythm

많은 곡의 리듬은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13에서 표시한 박스(box) 부분은 베이스는 연주하지 않고 라이드 심벌즈와 스네어 드럼을 연주하고 하였다. 이러한 연주 형태는 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의 고전적 리듬인 ‘아프로큐반(Afro-Cuban)’ 리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인트로 연주

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펑크 음악에 라틴 리듬을 적용하여 연주하였다.

벌스(verse), 코러스(chorus) 드럼 연주기법은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리발디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친 것으로 기존 펑크 리듬에서 나타나는 백 비트(Back beat) 리듬에서 벗어나는 연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의 스네어 드럼에 악센트 주법을 사용하지 않고, 음악의 브라스 파트와 유니즌 연주에 해당하는 박(beat)에 악센트를 연주하였다.

데이비드 가리발디는 자신의 연주기법에 대하여 “내게 장점인 나만의 연주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하려 하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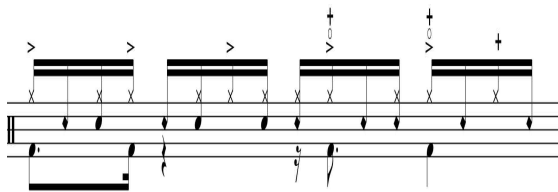


Fig. 14. 'Soul Vaccination' verse & chorus Drum Rhythm

벌스, 코러스 부분의 드럼 리듬은 아래 Fig. 15에 표시된 '스위스 아미 트리플렛 (Swiss Army triplet)'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태의 프레이즈(phrase)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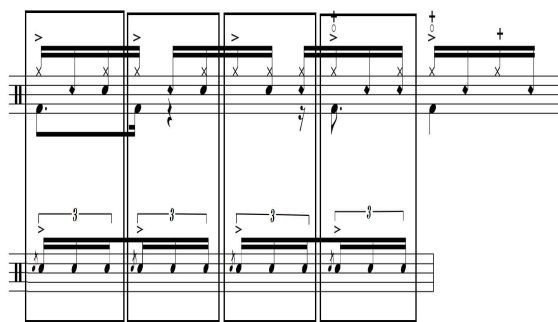


Fig. 15. 'Soul Vaccination' & Swiss Army triplet Rudiment

가리발디는 'Swiss Army triplet' 연주기법을 하이햇과 스네어 드럼으로 적용하였다. 한 박자를 16분음표 4개의 그룹으로 생각하지 않고 3박자에 'Sixteenth note triplet' 4번 연주하는 패턴으로 마지막 남은 1박자는 16

분음표 1그룹으로 추가 구성하여 1음절(one-bar phrase)로 만들었다[24].

곡의 드럼 연주기법 분석을 통해 본 그의 연주기법은 기본 패턴으로 일정하게 한 곡을 연주했던 동시대의 연주 스타일과 다르게 기본 루디먼트를 활용한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펑크 드럼 연주기법으로 전환 시킨 점이다.

3. 연구분석 요약

펑크 음악은 1960년대 말에 소울(Soul) 음악의 대부분으로 불리는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에 의해 만들어졌다. 1970년대 슬라이 앤 더 패밀리스톤(Sly & The Family Stone), 타워 오브 파워(Tower of Power), 팔라먼트-펑카델릭(Parliament-Funkadelic), 쿨 앤 더 갱(Kool & The Gang),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등과 같은 밴드들에 의해 펑크 음악은 더욱 부흥기를 맞으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은 재즈 음악의 근간이 되는 즉흥연주가 그의 음악의 전반적인 기류였고 밴드 연주 파트 간에 반복, 분할, 병합하는 음악적인 구성은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

1965년 ~ 1970년 기간에 발표한 제임스 브라운의 대표곡 두 곡을 선정하여 드럼 연주기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Fig. 2 ~ Fig. 6의 악보에 나타난 것처럼 펑크 리듬이 8분음표의 단순한 리듬 구조(1960년대)에서 16분음표로 분할되면서 악센트(Accent), 고스트 노트(Ghost note), 16분음표 더블베이스 드럼(Double bass drum)으로 변화를 주는 것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분음표의 펄스를 강조한 초창기 펑크 드럼 연주 형태는 1곡 안에서 리듬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해진 리듬 패턴을 반복하여 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의 1973년 발표곡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곡 'Keep Your Head to the Sky' Fig. 7에서 드럼 연주는 록(Rock) 음악에서 사용되는 기본 8분음표 리듬을 사용하며, 드럼 연주기법에서의 특이한 연주기법은 없이 다른 파트 연주를 뒷받침해주는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곡 'Build Your Nest' 곡에 사용한 드럼 연주에서는 하이햇 연주를 16분음표로(Sixteen Note Hi-Hat Groove) 연주하였다. 스트레이트(Straight)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펑크 음악에 리듬감을 주기 위

해 베이스 드럼의 리듬을 16분음표 사용으로 패턴화하였다. 베이스 드럼의 연주는 4분음표를 점 8분음표(Dotted eighth note)와 16분음표(Sixteenth note)로 분할 연주하였다.

이처럼 ‘제임스 브라운’과 ‘어스, 윈드 앤 파이어’ 음악에 사용한 드럼 연주기법은 4분음표 기본 리듬에서 16분음표 분할 연주기법까지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드럼 연주기법은 정해진 리듬 패턴을 반복하여 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파트 연주를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연주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비드 가리발디가 속해있는 ‘타워 오브 파워’의 1973년 발매한 세 번째 앨범<Tower of Power>에 수록된 두 곡의 드럼 연주기법을 분석한 결과 앞에서 살펴본 대상 곡들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1곡 내에서 곡 구성에 따라 드럼 연주기법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곡 ‘What is Hip?’ 인터루드(Interlude)에 사용한 드럼 연주의 기본은 삼바(Samba) 리듬을 변형(variation)하여 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곡 브릿지(Vridge)에 해당하는 연주 리듬은 패러디들(Paradiddle)의 루디먼트의 변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손의 교차 방식(RLRL)의 16분음표 연주가 아닌 복잡한 구조의 연주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모티브(motive)를 만들어 자신만의 독특한 연주기법을 고안하였는데 Fig. 12. 루디먼트에서 양손을 확인할 수 있듯이 왼손을 첫 번째 박자에 넣는 리듬을 만들었고 1970년대 연주자들에게 획기적인 연주기법이었다.

두 번째 분석 곡 ‘Soul Vaccination’ 연주기법은 Fig. 13.에서 확인되었듯이 다른 파트(브라스 섹션)의 연주 리듬을 리프(Riff) 형식의 연주와 소리(Sound)에 변화를 주고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계 쿠바 리듬 ‘아프로-큐반(Afro-Cuban)’ 리듬 형식을 취한 것으로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에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지 않고 라이드 심벌즈와 스네어 드럼을 연주하였다.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의 스네어 드럼에 악센트 주법을 사용하지 않고, 음악의 브라스 파트와 유니즌 연주에 해당하는 박(beat)에 악센트 주법으로 연주하였다[26].

벌스, 코러스 부분의 리듬은 루디먼트 ‘Swiss Army triplet’ 연주기법을 하이햇과 스네어 드럼으로 적용하였다. 한 박자를 16분음표 4개의 그룹으로 생각하지 않고 3박자에 ‘Sixteenth note triplet’을 4번 연주하는 패턴으로 마지막 남은 1박자는 16분음표 1그룹으로 추가 구성하여 1음절(one-bar phrase)로 만들었다.

4. 결론

펑크 음악의 전성기인 1970년대 펑크(Funk) 드럼 연주기법에 있어 혁신을 일으킨 데이비드 가리발디(David Garibaldi)의 연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연주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기존 연주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자 했다. 동시대의 드럼 연주기법은 기본 리듬(Rhythm)과 백 비트(Back beat) 연주에 충실했다. 그러나 가리발디 연주는 정박자(On beat)와 엇박자(Off beat)에 연주되는 베이스 드럼과 백 비트에 연주되는 스네어 드럼의 연주 박(Beat)을 변경하거나, 박자를 쉬는 형태의 시도를 하였다.

두 번째, 펑크 리듬에 혁신을 가져온 루디먼트(Rudiment) 연주기법을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패러디들(Paradiddle)기법’, ‘악센트(Accent)기법’, ‘스위스 아미트리플렛(Swiss Army triplet)’ 연주기법은 리듬 스타일의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손 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세트 드럼(Drum kit) 전체에 적용하여 하이햇 심벌즈,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 라이드 심벌즈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연주하였다.

세 번째,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접목시켜 드럼 리듬의 변형을 이루었다. 16분음표(Sixteenth note)연주에 머물러 있던 펑크 드럼 리듬에 라틴 리듬 삼바(Samba) 패턴과 아프로-큐반(Afro-Cuban) 형식을 펑크 음악에 접목을 이루었고, 그것을 자신의 펑크 드럼 연주기법에 적용하였다.

네 번째, 라틴 음악의 구조에서 얻은 아이디어 유니즌 형식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패러디들(Paradiddle) 연주기법과 라틴 리듬은 드럼 연주기법만을 위한 연주가 아닌 브라스 연주자들과의 유니즌 리듬(Unison rhythm) 연주와 동일한 연주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해석은 라틴 음악의 구조에서 얻은 아이디어인 것으로 분석 된다.

데이비드 가리발디(David Garibaldi)의 펑크 드럼 연주기법의 혁신은 루디먼트 연주기법을 이용한 변형과 이것을 세트 드럼(Drum kit)으로까지 적용(apply)하여 확장하는 발전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성장 배경에서 얻은 음악적 아이디어를 연주에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변형 연주기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S. Roy. (2012). *Popular music: The key concepts*. George Routledge : Routledge Publishers.
- [2] J. G. Kim. (2010). *A study about the influence that Soul, Funk music style extended to Korean popular music (1960s~1980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3] C. Bernhard. (2007). Drummer world. David Garibaldi. <http://www.drummerworld.com>
- [4] W. Joel. (2006. January). *Top R&B/Hip-Hop Singles: 1942-2004. of Record Research. 1.* 84.
- [5] S. U. Joung. (2008). *A study on Pop group earth, wind & fires september Based on melody, harmony and rhythm*.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6] Wikipedia. Earth, Wind & Fire. <https://www.songhall.org>
- [7] Wikipedia. Rock and Roll Hall of Fame. <https://www.rockhall.com>
- [8] Vic Firth. (2015). Interview Series. <http://www.vicfirth.com>
- [9] S. Michael. (2015). David Garibaldi. *NFTF with David Garibaldi*. <http://www.jakefeinbergshow.com>
- [10] P. Jim. (1996). *The Great Drummers of R&B, Funk & Soul*. USA: Warner Brothers.
- [11] W. Ron. (1991. February). *David Garibaldi: Funk Stylist. Modern Drummer.* 18-23.
- [12] F. Jake. (2014). David Garibaldi. Part II with David Garibaldi. <http://www.jakefeinbergshow.com>
- [13] J. T. Meronuck. (2015). *What Is Hip? David Garibaldi: His Musical Life, His Influences, and His Contribu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http://dx.doi.org/10.34917/8220142>
- [14] Vic Firth. (2015). *Interview David Garibaldi*. <http://www.vicfirth.com>
- [15] J. T. Meronuck. (2015). *What Is Hip? David Garibaldi: His Musical Life, His Influences, and His Contribu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http://dx.doi.org/10.34917/8220142>
- [16] P. Jim. (1996). *The Great Drummers of R&B, Funk & Soul*. USA: Warner Brothers.
- [17] S. E. Jeong & T. S. Cho. (2020). A Study on the Electric Guitar. focusing on Fender Stratocast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5)*, 426-432.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0.21.5.426>
- [18] Y. S. Jeong. (2014). *Exploring the evolution of sound through the influence of electronic music in popular music*.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Yongin
- [19] J. I. Ju. (2021).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Mediated Effect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1)*, 237-250.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1.22.1.237>
- [20] J. H. Seo. (2021),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curriculum management of colleges of applied music-with the focus on applied music departments based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2)*, 529-538.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1.22.2.529>
- [21] E. S. Lee & J. H. Ko.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2)*, 587-592.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1.22.2.587>
- [22] B. N. Rae. (2020).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otives of Higher-Educated Adult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2)*, 182-191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2.182>
- [23] H. C. Kim & T. S. Cho. (2020). A Study on Employment Channels to Find A Way for Practical Music Students -About the Need and the Direction of Use of The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1)*, 379-384.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1.22.1.379>
- [24] S.W. Jeon, H.Y. Park.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37 - 46,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12.037>
- [25] G. Kim, S.U. Yun, H.T. Kim, A Study on the Integration Model of Continuous Intention to Collect K-POP Records Using S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485-492,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5.441>
- [26] K.I. Choi, J.I. Lee, Y.A. Yoon,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on the school adaptation and media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485-492,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8.485>

김 관 진(Kwan-jin, Kim)

[정회원]



- 2021년 9월 : 동원대학교 특임 교수
- 2017년 9월 ~ 2021년 8월 :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 2014년 2월 ~ 현재 : 킹덤엔터테인먼트 대표
- 2008년 6월 ~ 현재 : 김관진 실용음악학원 원장

- 관심분야 : 실용음악, 드럼, K-pop, 엔터테인먼트
- E-Mail : dms7800@naver.com

조 태 선(Tae-Seon, Cho)

[정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관심분야 : 보컬, K-POP, 실용음악
- E-Mail : entheos@chungwoon.ac.kr